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예천 군민 "일방적 추진"

경북 안동시가 예천군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예천 군민들이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경북도청 신도시 생활권 일원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지방소멸 극복,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행정구역 통합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시 위원회 구성 "소통 먼저...밀어붙이기 아냐" 정계 일각선 지역 갈등 우려

이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안동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

학동 예천군수는 간담회(매일신문 6월 28일 보도)를 통해 행정 일원화 방안으로 '통합행정' 의견은 나왔지만,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 밝힌 바 있다.

예천 군민 상당수는 안동시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충분히 자급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동시 정계 일각에서도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역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안동 한 정계 인사는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안동과 예천이 함께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예천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역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점점 가시화되자 예천에서는 범군민 반대 운동

"도청신도시로 자금 성장 가능" 상당수가 분노·불쾌감 느껴 예천 범군민 반대 운동 조직

조직도 보인다. 예천군 한 사회단체는 "안동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많은 예천 군민들이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지역 간 갈등의 골이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달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생활권 분리에 따른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통합 당위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조례"라며 "상생 협력 관계인 예천 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일방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준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2일 오후 9시 40분쯤 '2022 상주소울푸드페스티벌' 무대에서 열창한 뒤 관중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이찬원. 상주시 제공

지르고·놀고·먹고·담고 울진 4GO 페스티벌

9일~10일 바지계시장서 개최

경북 울진군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울진 바지계시장에서 '울진바지게 포GO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군민, 관광객들이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하고자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마음껏 소리 질러 대회에서 지르GO, 만화영화 코스튬 입고 경품 게임에서 놀GO, 바지게 야시장 버스킹공연 보며 맥주파티

에서 먹GO, 장바구니에 쇼핑하고 개인 SNS에 사진 올리며 추억 담GO 등이다.

9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전소리지르기 대회가 열리며 내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된다 싶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흥겨운 음악과 19세 이상 모든 참여자에게는 350cc맥주 한잔 무료 제공과 함께 맥주 빨리 마시기대회, 까발산 타임 노래자랑이 열린다.

10일에는 개인 SNS에 인증만 하면 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상품권으로 음식도 사 먹고 받은 영수증으로 다크 게임도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만화 주인공 의상 대여로 어린이들의 코스프레 행사가 진행된다.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울진에서 생산된 다양한 특산물 시식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로컬푸드도 함께 열린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상주 소울푸드축제 10만명 '역대급' 인파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북 상주 경상감영공원에서 펼쳐진 '2022상주소울푸드페스티벌'이 역대 상주시 축제 사상 가장 많은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찾아 축제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상주시가 천고마비의 계절에 추억의 상주 소울푸드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도록 한 이번 첫 축제에는 상주 시민이라면 대부분 축제장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민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축제 주인공을 경시기, 배추전, 탁배기, 수제비, 갈국수 등 상주 시민들이 공감하는 소울푸드와 청년 감성을 담은 먹거리로 정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볼

3일치 음식 하루만에 동남 진풍경 신개념 도심축제 성공 모델로 호평

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상감영공원 특성상 기존 조선시대 건축물에 저갯거리를 만들고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에서 마련한 각각의 소울푸드 부스에는 어느 부스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3일치 준비한 소울푸드가 하루만에 동이 나 비상이 걸렸을 정도다.

다문화가족이 함께 마련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다문화 소울푸드 체험장도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행사장 인근 도로

변 300m까지 차량으로 뒤덮였지만 안전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아울러 상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기 가수 이찬원을 비롯한 장운정, 박서진 등을 초청해 전국 각지에서 합세한 팬들은 이번 축제의 보너스였다.

그동안 상주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개발을 위해 자전거축제, 이야기축제 등을 열어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표류해왔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문화와 예술, 한국인의 입맛이 융합된 신개념 도심축제로 상주 축제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한-중-일 대중가요·전통연희 교류의 장

내일부터 9일까지 경주 일대서 3국 민속놀이 문화체험도 열려

경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봉황대 및 중심사가 일대에서 한·중·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한·중·일 3국의 대중가요와 전통연희를 >문화공연 >문화체험 >무대행사로 나눠 다양하게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7일 오후 8시에는 봉황대 광장에서 뮤직스퀘어와 연계해

국내 초특급 가수 백지영과 VOS, 리듬파워 공연이 열린다.

8일에는 한국 가수 김범수, 일본의 엔카 가수 야마모토 유미코, 중국 대중가수 준키의 대중음악 공연이 개최된다.

9일에는 3국의 전통연희인 한국의 줄타기와 남사당패 놀이, 중국의 사자춤과 변경, 일본단체 키카쿠야의 가부키 공연으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3국의 문화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알려진 한국의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일 양국의 민속놀이가 봉황대 광장에서 3일간 오후 1시부터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 행사 포스터.

열린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한·중·일이 매년 각각 하나의 도시를 선정해 다채로운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2022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수기 공모

총상금 : 2,000만원
접수: 10월 21일 까지(saup@imaeil.com)

메일신문사는 다문화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전국 다문화가족생활수기'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즐겁고 행복했던 일, 슬프고 힘들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대상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누구나 / 나이, 국적 제한 없음(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응모내용 : 다문화가족의 경험을 긴 글(수기)로 작성
1) 우리 가족 이야기 2) 한국 생활 적응 과정 3)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이야기 4)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느낀 점, 앞으로의 꿈·희망
5) 고향 방문 이야기, 사위·며느리 나라, 부모님 나라 방문 이야기 6) 우리 부모님 이야기 또는 자랑
7)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의 자랑거리 8) 그 외 다문화가족으로 자신 또는 가족들이 겪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

응모요령
1) 언어 : 한국어 2) 1인당 1작품
3) 분량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A4용지 3장(12point 기준) 내외(초·중학생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장 또는 A4용지 2장 내외)
4) 표지 내용 /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① 제목 ② 이름(한글과 영어) ③ 연락처 ④ 주소 ⑤ 생년월일 ⑥ 한국거주연도수 ⑦ 출신국(가족의 경우, 관계 및 결혼이민자 부부의 출신국 모두 표기)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택1, 중복접수 불가)
1) 이메일 접수 : saup@imaeil.com
2) 우편 접수 : (41933)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다문화가족생활수기공모' 담당자 양

접수마감 : 2022년 10월 21일(금),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수상자 발표 : 2022년 11월 11일(금), 매일신문지면 및 홈페이지 예정

시상내역

대상	1명	여성가족부장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가작	5명	매일신문사장상	각 상패 및 상금 80만원
	우수상	각 1명	대구광역시장상 경상북도지사상 매일신문사장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상패 및 상금 100만원	특선	8명	매일신문사장상
				입선	30명	매일신문사장상	각 상패 및 상금 20만원

문의 : 053)251-1414

유의사항
1) 아래의 결격사유 발생 시 입상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① 남의 작품을 베껴거나 표절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동일 내용으로 응모한 경우
③ 기타 허위사실 기재 등
※ 상기 항목에 해당되어 사실이 취소될 경우 시상식 이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패는 환수 조치하며, 법적 책임은 응모자가 지어함.
2)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입상작은 2023년도 수기집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로 제작되며, 입상된 작품은 방송, 신문 및 온라인 기사 등 주최 측이 게재를 허락한 매체를 통하여 발표될 수 있습니다.
4)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시상항목 중 일부는 선정 및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입상자 발표 및 수기집 제작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식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6) 작품 출품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최 **매일신문** 후원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성에너지(주)**